

<끔찍하고 아름다운>
남진우 개인전
아티스트 토크 녹취록

2022.01.08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팟캐스트 링크

<https://podbbang.page.link/iGjaGeEuyUpXkAWP7>

김인선 : 안녕하세요. 남진우 작가님.

남진우 : 안녕하세요.

김인선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 남진우 작가님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목은 '끔찍하고 아름다운 Dreadful Beauty'입니다. 전시 기간이 2021년 12월 15일부터 다음주 1월 14일까지입니다. 전시가 끝나기 전에 작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작가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우 : 작가는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했어요. 최근 2021년 아웃사이트에서 개인전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젊은 모색'에 선정되어 대작을 보여주셨어요. 그 때의 작업들이 인상적이었던 분들이 많으셨나봐요. 많은 분들이 전시 관람을 해주셨습니다. 작가님이 홍익대학교에서 공부하셨는데, 그 전에는 외국에 계셨었죠?

남진우 : 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외국에 있었어요.

김인선 : 여러 군데 다니셨던 걸로 아는데, 어디 어디에 계셨어요?

남진우 : 보스턴에서 태어났고, 주로 덴마크에 있었고 아프리카의 케냐, 싱가포르, 프랑스 그 다음에 미국의 워싱턴이었어요.

김인선 :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방인으로서 청소년기, 성장기를 외국에서 있었잖아요. 특별한 감성도 생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림에서 느껴지거든요.

남진우 : 주변 사람들로 부터 그런 얘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저도 그 부분을 인정하게 되요.

김인선 : 작가님이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왕오징어를 중심으로 그려왔다고 알고 있어요. 여기 뒤에 보이고 있는 그림에 큰 눈이 있고, 알록달록 붉은 색이 대왕오징어예요. 이런 종류의 대왕오징어들이

이 전시 작품들에서는 살짝씩 드러나고 있지만 사실 그 전에는 주 소재였잖아요.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쪽 그려오면서 하나의 세계관이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일단 대왕오징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남진우 : 제가 왜 하필 대왕오징어를 그리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유치원 시절 오징어라는 생물을 사진인가 TV 인가에서 처음 접했어요. 다리가 여러 개 달린 연체 동물의 모습이 제게는 큰 인상을 가져다 주었고, 언제부턴가 오징어라는 생물에 푹 빠지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처럼 오징어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인선 : 그러면 유치원 때 작가님이 어디선가 보고 좋아하게 된 대왕오징어가 계속 본인한테 마음에 남아서 애완동물처럼 좋아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애정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본인 자신이기도 한 거죠?

남진우 : 네. 맞습니다.

김인선 : 어떤 연유로 본인 자신에게 투사하시는 거예요?

남진우 : 그건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일단 오징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특히 대왕오징어에 대한 환상이란 게 있었어요.

김인선 : 그 대왕오징어라고 익히 알고 있는 게 어떤 생물인 거예요? 쉽게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남진우 : 맞아요. 지금까지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지금도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는 수수께끼가 더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더 환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다리길이까지 포함해서 7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김인선 : 동화책이나 전설 같은 걸 보면 바다에서 해적선 같은 걸 다리로 휘감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작가님 초기 작업에서 바다에서 오징어 다리가 배를 휘감고 그 배가 활활 타고 있는 장면들도 본 것 같아요. 그런 전설에서 영감을 받으신 건가요?

남진우 : 네. 그렇습니다.

김인선 : 이런 대왕오징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본인을 투영하기도 한 것이 아까 외국생활을 오래하셨다고 하셨는데, 본인 스스로 이방인으로서의 보호 반응 같은 것을 설정하기 위해서 대왕오징어를 어떤 방식으로 계속 사용했었다 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갑옷을 입은 대왕오징어'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방어하는 심리같은 건가요?

남진우 : 방어를 하는 심리도 있었고 제가 그려왔던 초기의 작업 같은 경우는 제 안에 있는 광기나 분노, 그런 것들을 막고자 하는 방어체계이기도 했었어요.

김인선 : 외부에서의 방어처럼 내부로부터의 방어도 있군요.

남진우 : 그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외부에서 보호받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말이죠. 저도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인선 : 작가님이 초기 드로잉 작업을 몇 개 가져오셨는데, 보여드릴까요? 화면으로 잘 보이실 지 모르겠는데, 재미있어요. 이게 2008 년도 작업이에요. 갑오징어인 거죠?

남진우 : 네. 맞습니다.

김인선 : 흑백드로잉인데 매우 장식적이기도 하죠. 갑옷을 입은 몸체의 오징어 모양이 있고, 이런 시리즈가 아주 많아요. 여기 담배를 펴고 있는 까마귀도 보이네요. 이게 다 대왕오징어 시리즈입니다. 성곽 같은 오징어 몸체에 항상 까마귀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남진우 : 까마귀는 아니고, 일종의 도깨비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제 자신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보시면 작게 사람 같은 게 있어요.

김인선 : 아하.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통적으로 작은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이게 본인이라고 하네요. 이걸 생생하게 현장에서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양인데, 모든 장면이 조금씩 달라요. 2007~2008 년도에 이런 그림을 그리셨네요. 이때가 학교에 다니실 때인가요?

남진우 : 제가 2006~2008 년도까지 군복무를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린 그림들입니다.

김인선 : 드로잉들을 굉장히 많은 양을 그렸네 했는데 군대에서 그렸던 거네요. 제대하면서부터 본격적인 페인팅을 하게 된 건가요?

남진우 : 맞습니다. 일단 군복무때에는 작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케치북으로 작업했지만 복학생이 되면서 판넬이나 캔버스 같은 오브제를 활용할 수 있기에 그때부터 세계관을 더 넓혀갔던 것 같습니다.

김인선 : 네. 어떤 세계관이죠? 전반적으로 설명해드리면 어떨까요?

남진우 : 단조롭긴 하지만, 오징어로 가득한 왕국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때는 오직 오징어로만 그림을 그려왔었죠.

김인선 : 오징어로 가득한 세계관을 펼치고 계신데, 그 안에서 여러가지 캐릭터와 상황들이 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왕오징어들은 평화롭나요?

남진우 : 평화롭지는 않아요. 제가 군 복무하기 전에 대학 때도 오징어를 그렸지만 그 당시에 그렸던 오징어는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갑오징어와 대왕오징어였어요. 그러다가 군복무를 통해서 유년시절을 떠올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때부터 저만의 상상으로 만든 오징어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적으로 얘기할 때 밝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김인선 : 본인이 어렸을 때 여러 타지를 바꿔가면서 느꼈을 외로움도 있고 그런 상황 때문에 외부에서 본인을 공격하는 상황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로 투영이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전시장 안에는 오징어보다는 그 오징어를 대적하는 영웅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이번에는 영웅이란 캐릭터를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고,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해보기는 할 텐데, 이렇게 대립하는 캐릭터들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두 가지 캐릭터를 같이 놓거나 캐릭터 자체를 부각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두개의 대립된 캐릭터가 싸운다는 단순한 구조 같기는 한데, 단순히 선과 악의 대립이라는 느낌보다는 특히나 이번 전시에서는 선으로 볼 수 있는 영웅들끼리의 대립을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정의 배경 그런 것들을 얘기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남진우 : 네. 이번에도 제가 유년 시절의 얘기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만화를 즐겨봤어요. 특히나 대다수의 남자분들은 로봇 만화나 영웅들이 등장하는 만화를 즐겨봤는데, 그 만화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항상 착한 편과 악당이 나눠져 있었죠. 착한 편은 인간의 형태에 더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 반면에 악당들은 인간의 형상과 거리가 먼 괴물 같은, 괴기스러운 모습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악당이라 좋기보다는 그 악당들이 가진 기묘한 생김새가 큰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깐 저는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런 만화를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악당 편을 들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의 취향 같은 것이 주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지는 못했죠.

김인선 : 저도 주인공 로봇 편을 들었었어요.

남진우 : 심지어 주변 애들을 괴롭히는 아이들도 그런 만화를 보면서 착한 편을 들더라고요. 그런 사연으로 인해 고독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할 수 있어요. 선과 악이 무조건적으로 구분되어야만 하고 그렇게 만들어야지 뭔가 세상이 잘 돌아간다는 인식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제 작품에 선과 악의 양면성을 그려 본 것도 그런 경험들이 배경에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김인선 : 그러게요. 저도 로봇 만화에서 우리 편이 괴물같이 생긴 악당을 물리치면 박수 쳐주고 잘한다, 착한 편이 이겼다 가 가장 기본적인 태도였는데, 작가님은 다른 쪽을 보고 계셨군요. 우리 편조차도 선과 악이라는 양면성이 분명 존재할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남다른 생각을 해서 자기 또래의 아이들과 어울리기 힘들었다 하셨는데, 그런 과정을 겪고 작품들을 해오면서 영향을 받은 이야기, 책, 작가, 만화 같은 게 있을까요?

남진우 : 우선 작가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지금 영감이나 영향을 받았던 작가를 떠올린다면 두 분이 있는데요. 한 분은 아마노 요시타카(あまのよしとか, Amano Yoshitak)라는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요. 파이널 판타지 게임의 일러스트와 캐릭터를 맡았던 분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그 사람의 삽화나 일러스트를 보면서 그림 그리는 직업에 대한 꿈을 키워 나갔었고, 판타지 적인 작업 방식에도 그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분이 했던 명언 중에서 제가 지금도 좋아하는 명언인데요. '사람들이 캐릭터를 좋아하는 것은 곧 그 캐릭터 안에 심화된 독특한 세계관 때문인 것 같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인선 : 캐릭터 자체보다는 캐릭터를 통해서 심화되는 세계관이 더 중요하다 라는 뜻이겠죠?

남진우 : 네. 그래야 그 캐릭터의 색깔이 더 도드라진다 그런 뜻이요.

김인선 : 그래서 우리가 판타지 만화에 빠져드는 이유는 악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뭔가 이중적인 감정이 들면서 저 사람은 악인인데 매력있어 이런 느낌도 가지게 되고.. 물론 작가님은 오징어 같은 모양새에 더 그럴 수 있겠지만..

남진우 : 두번째는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요. 아웃사이드 아트(Outsider Art)라는 장르가 있는데, 아웃사이드 장르부터 설명하자면 우리처럼 전시를 하는 그런 아카데미에 속한 작가라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에서 거리가 멀고,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혼자만의 세계에 폭 빠져 그린 그림들이 주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헨리 다거(Henry Darger)라는 작가 분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 작가를 대학 시절에도 알고 있었지만 엄청 좋아하게 된 시기는 제가 방황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김인선 : 방황했던 시기가 언제였죠?

남진우 : 2016~2017 년 때인 것 같아요.

김인선 : 그때는 제가 작가님을 알게 된 시기였는데, 그런 기척을 못 느꼈어요.

남진우 : 제가 방황을 했지만 한 편으로는 내려놓는 시기였어요. 제가 작가로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작업실을 이사해서 책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웃사이드 아트 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책을 읽다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부럽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고민들, 미술계에서 알아주는 작품을 해야 되고 알아주는 데에서 전시를 해야 하는 그런 식으로 경력을 쌓아야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작업을 해오던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웃사이드 아트 책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가진 작가가 아니라 그저 자기만의 세계에 폭 빠진 어린아이나 노인인 것 마냥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마치 작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그리는 것 자체에 집착하는 것 같다고 해야하나? 어떻게 보면 그들의 창작물들이야말로 진정한 순수미술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저 또한 그들처럼 집착하듯이 그림을 그리고 싶었죠. 그때부터 큰 변화가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콜라주를 처음으로 시도해 보았고, 저의 동심의 왕국을 조금 더 깊이 심화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금 작업을 즐겁게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김인선 : 작가님을 처음 봤을 때 워낙 차분하고 조금해 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경력이 많거나 특별히 활발하게 전시를 하는 성향은 아니다 했는데, 작업실에 가보면 오징어 그림들로 꽉 차 있었죠. 담담하게 보여주면서 색깔도 화려하지만 굉장히 차분한 모습에 이 작가는 정말 그림에 폭 빠진 사람이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지, 이렇게 고민을 겪었을 거라 상상도 못했네요.

남진우 : 그런 걸 겪은 이후에 선생님을 뵈는 거라 그런 가봐요.

김인선 : 작가님도 그런 과정이 있었군요. 본인의 것을 본인이 즐기면서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은 기회도 오고 소개할 기회도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거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헨리 다거 작가의 이미지상에서 영향을 받으신 것도 있나요?

남진우 : 작업을 좋아해서 이미지상의 영향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작품보다도 삶 자체에 관심을 더 가졌던 것 같아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오직 전시나 그런 생각 안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살았으니까요.

김인선 :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전시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전시는 특히 하나의 캐릭터에 주목해요. 대왕오징어를 좀 빼고 대립되는 캐릭터를 주목해서 보여주고 싶다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번 작품들은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신작입니다. 이야기 내용은 같은 영웅들끼리 서로 잡아 먹고 찢고 쫓아내고 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울면서 쫓겨나는 장면도 있고, 숲에 숨어서 날개로 가리면서 자기 동족을 잡아먹고 하는 장면도 있어요. 직접 와서 보시면 그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아주 예쁜 그림들인데 잔혹 동화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전시 제목 '끔찍하고 아름다운 Dreadful Beauty'는 작가님이 직접 지으셨잖아요. 제목을 지을 때 염두했던 것이 있나요?

남진우 : 그 전에 그려왔던 작품 속 영웅들을 보면 얼굴이 여러 개 달린 것 외 왜곡된 모습으로 인해 낯선 괴물의 형상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정작 그들은 항상 정의롭고 영웅적인 행위를 취해왔어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모습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영웅들도 세뇌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웅들의 입장에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김인선 : 세뇌당한 피해자라고 하는 건 영화나 애니메이션, 소설에서 많이 등장하는 소재인 것 같아요. 여기서 묘사된 영웅들의 모습은 예뻐요. 이면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극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날개도 예쁘게 그리고 얼굴, 몸매도 그런 의도가 있는 거겠죠?

남진우 : 네. 영웅 모습 자체는 아름답고 선한 이미지만 갖다 붙이니까 이런 형상이 만들어진 거고요. 앞서 말했던 영웅적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람들 앞에서 공개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진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목 '끔찍하고 아름다운'은 끔찍한 진실과 아름다운 거짓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 더 한다면 제가 좋아하는 소설에서도 참고했습니다. 존 스타인벡(John Ernst Steinbeck)의 '에덴의 동쪽'입니다.

김인선 :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남진우 : 원죄를 바탕으로 성서에 등장하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언급이 돼요. 소설책에 나오는 주인공들도 스토리를 비슷하게 이어 나가요. 어떤 집안의 형제가 나오고 그 형제 중 한 사람의 자식들도 또 카인과 아벨처럼 형제로 나와요. 그 사람들의 죄와 그 죄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김인선 : 종교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데, 종교적으로도 많이 영향 받으셨을 것 같아요. 뒤에 작품을 보여드리면 전형적인 성상화 형식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가 계속 비추고 있는데, 동양의 신비로운 종교 느낌도 드는데, 말하자면 고전, 고대 느낌도 드는데요.

남진우 : 제가 현대 미술보다는 고전적인 바로크 양식같은 종교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자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김인선 : 보시다시피 장식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끝에 꽃을 화려하게 치장해 놓거나 인물마다 뾰족하게 생긴 노란색이 달려 있는데, 바늘을 천으로 둘러싸서 하나 하나 만들고 붙인 조형물이에요. 회화임에도 불구하고 튀어나온 부조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얘기는 좀 있다가 해보기로 하고, 이게 하나의 무대처럼 보여요. 오페라 얘기도 하셨잖아요.

남진우 : 네. 맞아요.

김인선 : 바로크 같은 고전 양식을 차용한 오페라 무대에서 보여지는 화려한 장식, 극적인 효과를 더 강조하기 위해 부조라는 걸 형식적으로 차용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부조 형식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신 거죠?

남진우 : 네. 맞아요.

김인선 : 그 전에는 대왕오징어를 바닥에 까는 입체 작업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대왕오징어가 바닥에 늘어서 있는 걸 종종 선보이셨거든요. 아웃사이트에서도 그렇고, 저희와 진행한 베이징 코뮌에서의 전시도 그렇고요. 그런 식의 완전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었던 적은 있는데, 여기서의 부조 형식은 처음이었어요. 작가님의 회화에 대한 실험 같은 걸까요?

남진우 :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작업을 시작할 때 제가 좋아하는 고전 미술이나 양식, 제단화같은 느낌들을 제 작품에서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해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 부조 작품도 성당에서 보여지는 제단화를 바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인선 : 그런 형식적인 걸 적극적으로 가져오면서 더 고전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영웅들의 모습을 보면 날개를 달고 있고 형태가 갑옷을 입은 사람의 모양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몸에 세 개의 얼굴이 있기도 하고 큰 뱀 같은 모양새로도 있기도 한 어디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고 초현실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고전적인 전설이나 종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미술사 중세 미술에 항상 나오는 매뉴스크립트(manuscrip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양피지 그림인데, 성경책을 아주 비싸고 손이 많이 가는 얇은 가죽에다가 손으로 일일이 그리는 삽화나 글쓰기 작업이 있는데, 그런 이미지들도 연상이 돼요.

남진우 : 매뉴스크립트나 삽화도 제가 영향을 받았죠.

김인선 : 그렇게 보면 종교적인 색채가 진한 장면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부조라는 것이 본인의 스타일을 강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회화 작가이시지만 부조 외에도 입체적인 오징어도 만들고 설치하고 하셨잖아요. 이제 설치라고 하는 부분도 항상 함께 가는 것 같아요. 저희랑 예전에 그룹전 할 때도 그랬었고 재료가 다양한 걸 쓰는 게 아니라 색칠이 되고 그려진 광목천, 캔버스 천 이런 것들을 항상 사용하는 게 웬지 회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색다른 실험을 하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아까 또 초기에 얘기한 헨리 다거 같은 성향같이 열심히 오리고 붙이고 하는 수공예적인 태도와 연관이 있는 느낌도 드는데요.

남진우 : 태도라기보다는 처음 회화 작업을 했을 때 큰 작업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큰 작업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예를 들어 작품이 큰 만큼 재료 값이 많이 드니까 본전을 뽑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광목천같은 저렴한 재료 위주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같아요. 조금 더 저렴하고 부담없는 가격이라서 마음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고 더 잘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더 즐겁게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김인선 : 그림으로 그려진 요소들을 천으로 하나하나 이어 붙이면서 뒷면에 비닐을 넣어 부피를 만들면서 입체를 형성하고 있어요. 전시 공간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얇은 종이의 레이어들을 쌓고 하면서 많은 시간을 들인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보면 콜라주라고 하는 형식 자체도 비슷한 맥락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장식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느낌을 가지기도 합니다. 맞나요?

남진우 : 네. 맞아요. 처음에 콜라주를 시작했던 계기가 입체적인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였어요.

김인선 : 네. 훨씬 전부터 이런 구조로 시도 하셨었잖아요.

남진우 : 네. 2017년도 처음 시도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막상 완성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효과는 안 나더라고요. 입체적인 효과 대신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는데 저는 그 느낌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그냥 일반 평면으로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살짝 접혀 있는 부분도 있고 좀 거칠어진 부분도 있는데 그런 느낌이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더구나 관람객분들도 그런 반응을 보여줘서 좋았고요.

김인선 : 콜라주 형식하고 조금 또 통하는 게 같은 형식은 아니지만 액자를 따로 하지 않고 큰 화면 양쪽 아래로 구멍을 내서 걸 수 있도록 만드는 걸게 그림도 하시잖아요. 작업실에 맡아서 보관하시고, 그런 작업도 사실 같은 맥락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레이어라고 하는 것이 주는 효과를 걸게 그림 또는 콜라주를 통해서 또 다른 미세한 감정의 차이 같은 것들도 만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형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봤고요.

이 전시 이후에 이 두 가지 캐릭터 외에 또 다른 캐릭터도 염두에 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그건 무엇이냐 라고 하셨고 지금도 공개를 안 하실 것 같긴 하지만, 무엇이 더 확장되고 변화해 나가고 있는 건지 알고 싶긴 하네요.

남진우 : 앞으로의 작업 방향은 뭐랄까요. 현재 그려나가는 이 왕국의 서사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블 영화를 보시면 영웅들이 개별적인 영화가 있잖아요. 개별적인 영화들이 있지만 세계관은 하나인 거예요.

김인선 : '어벤저스'같은 식인가요?

남진우 : 제 작품의 서사도 그런 형식으로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인선 : 그러면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할 때까지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보는 걸로 하고,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저희 윌링앤딜링은 5월에 열리는 아트 부산에 참가 신청을 했어요. 선정이 되면 저희 부스에서 남진우 작가님의 여러 종류의 작업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특별한 공간에서 개인전 예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소개해 주시죠.

남진우 : 오시션이라는 공간입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이 잡힌 건 아니지만 가을 이후로 생각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영상 작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선 : 영상은 직접 만드세요?

남진우 : 네.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애니메이션 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인선 : 워낙 캐릭터가 확실해서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도 들고, 남진우 작가님의 애니메이션은 어떤 느낌일까 라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토크를 진행하지만 지금 전시장 안에 관객 한 분이 앉아 계세요. 혹시 질문 있나요? 아니면 온라인 채팅을 통해 궁금한 걸 여쭙보시면 즉석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스토리가 있는 겁니까?

남진우 : 스토리의 일부일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제가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방식이니까 작업 형식보다도 스토리를 단조롭게 표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얘기해드리면 이전에 아웃사이트에서 했던 전시 그 이후에 연결되는 스토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김인선 : 콜라보 작업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해요. 애니메이션도 어느 정도 콜라보가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일종의 프로덕션을 요청하시는 건가요?

남진우 : 영상 전문을 하시는 분하고 협업한다기보다는 도움을 좀 받는 입장입니다.

김인선 : 온전히 본인의 작업인 거고 거기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만 개입을 하게끔 한다는 거군요. 채팅창으로 질문이 왔는데요. '실례가 아니라면 사용하시는 물감과 미디어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남진우 : 그게 브랜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떤 종류의 물감을 사용하시는지 인가요?

김인선 : 네. 어떤 제품을 쓰세요?

남진우 : 제품은 크게 따지지는 않아요. '반고흐' 또는 화방에서 파는 비슷한 가격대의 물감을 다 써보는 편이에요.

김인선 : 여러 가지를 써보시는군요. 독특한 게 여기서 사용하는 이 천 자체가 광목이에요. 그래서 유화물감임에도 불구하고 천에 스며드는 식의 느낌이 나서 굉장히 부드러운 색감과 느낌, 질감을 구사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천 자체에 뭔가 칠하시는 건가요?

남진우 : 맞아요. 젯소를 먼저 칠하죠.

김인선 : 근데도 이렇게 부드러운 감촉이 나오는 건 천의 질감인 건가요?

남진우 : 일단 젯소를 두껍게 칠하지 않는 것 같아요. 워낙 흡수가 잘되는 재질이다 보니까 젯소를 바르더라도 살짝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마음에 들었던 게 여러 번 덧칠해도 올라오지 않아요.

김인선 : 그래서 저렇게 부드러운 흡수 효과가 난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그 다음 질문은요. 화면으로서는 그림을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바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이것도 콜라주네요. 보시면 여기에 구멍이 여러 군데 나있고 그래서 현수막처럼 걸 수 있는 형식이고요. 아마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모두 콜라주예요. 종이로 다 그렇게 오려서 붙인 것처럼 선을 오려서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 붙여서 만든 콜라주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팔 목 얼굴 이런 폴도 골라주고 여기 곁에 장식 테두리 장식도 그렇고 저도 이거 지금 처음. 열어봤는데 재밌네요.

'젊은 모색' 전시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셨었어요. 지금 보시는 작품은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 '젊은 모색'에서는 큰 작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채팅창에서 멋있다고들 하시네요. 질문 하나더 읽어보면, '광목에 천을 붙일 때는 뭘로 붙이시나요?'

남진우 : 섬유 접착제라고 미술 재료라기보다는 공업 용도로 쓰이고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재료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인선 : 시중에서 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걸 만져보면 굳어서 좀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떨어지거나 할 염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성이 좋을 것 같네요.

작업을 잠깐 보셨고요. 혹시 실물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시장에 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시는 다음 주 금요일 14일까지입니다. 수, 목, 금 더 보실 수 있고 현장에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가님과 시청해주신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봐주세요.